

멋 내기 무대에 등장한 스카프

봄철은 스카프의 시즌이다. 스카프가 우리 나라에 멋 내기 무대에 등장한 것은 해방 이후이기 때문에 50여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. 당시에는 봄을 일으켜 이것이 트렌드화 하여 오늘날에는 고유의 멋 내기 아이템으로 되어버린 것이다. 스카프를 두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.

①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둘로 접어서 삼각형으로 하여 이것을 머리에 뒤집어쓴다던가 어깨에 두른다던가 허리에 두르는 방법이다. 이렇게 하면 스카프는 복장 중에서 큰 면적을 점하게 된다. 이 방법은 코너(스카프의 각이 난 부분)라던가 보더(스카프 네 변의 가장자리 부분, 이마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), 센터(스카프의 중심부분)의 빛깔과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.

② 삼각형으로 한 스카프를 어깨에 두른다던가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그 위에 재킷 또는 슈트, 코트 등을 입고 코트인의 모습으로 한다. 이러한 경우는 대각선상의 부분이 약간 들여다보일 뿐이다. 무늬보다도 색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며 무늬가 있어도 무늬를 전부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배색이 자아내는 색상의 분위기가 포인트가 된다.

③ 스카프의 빛깔과 무늬를 대각선의 좌와 우를 나누어 음양의 관계로 한 것이 있다. 예를 들면 왼쪽 부분을 검정색 바탕에 흰 물방울, 오른쪽 부분을 흰 바탕에 검정색 물방울로 하는 경우이다. 이것을 주야라고 부른다. 이렇게 하면 각각의 빛깔과 무늬의 차이를 각각 즐길 수가 있다.

* 스카프(scarf) :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 쓰는 등 장식과 실용을 겸한 목도리로서 어원은 프랑스어 에스카르프(escarpe)에서 발전한 에샤르프(echarpe)이고, 기원은 북방민족이 방한용으로 사용한 포제(布製)의

목도리라고 하나 연대는 불명하며, 시대와 더불어 의미의 범위도 차차 변용되었다. 서구에 보급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때 햇빛 방지와 장식을 위해서 술 장식이 달린 어깨걸이가 사용된 것이 처음이다.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스톨이나 네커치프 등도 스카프에 포함시킬 수 있다. 16-17세기는 기사나 군인의 장식 띠가 되었고, 19세기에는 남자용의 크라바트(cravate : 목도리 비슷한 구식 넥타이)에서 점차 넥타이로 발전하였다. 19세기말부터 주로 여성용 액세서리로서 네크라인을 장식하고 머리를 덮기도 하였으며, 벨트 대신 허리에 사용하는 복식품으로 애용되었다. 모양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이 있고, 감은 견 · 모 · 화학섬유 · 편물 등이 쓰이나 최근에는 조오젯 · 시폰 · 레이스 등의 얇은 감도 쓰인다.

* 스톨(stole) : 장식 또는 방한의 목적으로 어깨에 걸치거나 목에 두르는 의류를 말하고 프랑스어로 에톨르(etoile)라고 한다. 스톨은 고대 로마시대에 여성이 착용한 스톨라(stola : 당시 겹옷으로 걸쳤던 길이가 긴 옷)가 전신(前身)이라고 한다. 또 비잔틴시대 이래로 성직자가 의식 때 법의의 일부로서 어깨에 걸친 띠 모양의 장식물을 뜻하기도 한다. 보통 길게 양어깨에서 늘어뜨리거나, 머리나 목에 감기도 한다. 이브닝드레스나 애프터눈 드레스 등 드레시한 복장일 경우는 모피 · 비단 · 레이스 등으로 만든 것을 쓰는데, 어깨를 덮는 구실도 하지만 화려한 장식도 겸한다. 평상복에는 모직물 · 털실 · 모피 등으로 만든 것이 쓰이고 드레스와 같은 천으로 만들기도 한다.

* 네커치프(neckerchief) : 목둘레에 감거나 머리에 쓰거나 하는 작은 정사각형의 천으로써 넥(neck : 목)과 커치프(kerchief : 두건)의 합성어이다. 중세이래 서구의 여성들이 머리에 쓰던 것으로, 14세기경부터 여성과 아이들의 목에 이것을 감은 데서 이름이 비롯되었다. 19세기에는 남성의 크라바트(넥타이의 프랑스어)로도 사용되었다. 남녀 구별 없이 방한용이라기보다는 액세서리로

많이 쓰인다. 재료에는 실크 · 울 · 나일론 등의 유색 프린트 천과 무늬가 없는(無紋) 천 등 여러 가지가 있다.